

대학생소비자의 신용카드 사용행동에 대한 인과분석

: 현금서비스 사용행동과 연체행동을 중심으로

Path Analysis of Credit Card Use Patterns among College Students

: Examination of Cash Advances and Deferred Payments

충남대학교 소비자생활정보학과

석사 김창미*

충남대학교 소비자생활정보학과

교수 김영신**

Dept. of Consumers' Life Information, Chungnam National Univ.

Master : Kim, Chang-Mi

Dept. of Consumers' Life Information, Chungnam National Univ.

Professor : Kim, Young-Seen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general tendencies in credit card use, and determine the causes of the use of cash advance service and deferred payment among college students.

Socio-demographic variables(gender, year in college, allowance, family income, parents' education and occupation, having taken a personal financial management course), knowledge and attitudes toward credit card, and financial management practices were incorporated as antecedent variables.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ere conducted to test the hypothese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 First, 32% of the college students with no regular income experienced deferred payment, and 60.4% of them had used a cash advance service.

Second, the frequency and amount of cash advance service use were affected by family income, financial practices, and allowance. The financial practice as a parameter was affected by their completion of a personal finance course and their allowance.

Third, deferred payment of credit was affected by their knowledge on credit cards and their financial practices. The financial practices as a parameter were affected by the family income and their completion of a personal finance course, and the knowledge on credit cards was affected by gender.

Lastly, implications and suggestions for credit card use behavior research and consumer credit education are discussed in this article.

▲주요어(Key Words) : 현금서비스 사용행동(use of cash advance service), 연체행동(deferred payment of credit), 신용카드 태도(attitudes toward credit cards), 신용카드 지식(knowledge on credit cards), 재무관리습관(financial management practices).

1. 서론

21세기 신용사회에서는 화폐보다 신용이 그 사람을 평가하는

새로운 기준이 되고 있다. '플라스틱 화폐'라고 불리는 신용카드
는 소비생활에 있어 금전관리의 융통성 및 여러 가지 편익을
제공하는 등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생활의 필수품이 되
었다.

반면에 신용카드는 여러 가지 편익을 제공하지만, 신용카드
의 이용은 곧 부채를 의미하기 때문에 신용카드의 그릇된 사용

* 주저자 : 김창미 (E-mail : cmk0427@empal.com)

** 교신저자 : 김영신 (E-mail : ys_kim@cnu.ac.kr)

은 대금의 연체로 신용불량자 또는 개인파산을 초래하며, 나아가 가정 파산에까지 이르는 등 그 부작용은 날로 심각한 실정이다. 실제로 2004년 4월 말 현재 개인신용불량자가 400만 명에 육박하여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특히 신용카드 관련 신용불량자는 260만으로 전체의 68%를 차지하고 있다. 더욱이, 전체 신용불량자 중 20대¹⁾가 차지하는 비율이 2001년 말 16.7%에서 2003년 말 19.7%로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20대 10명중 2명이 신용불량자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은행연합회). 이는 가족 간의 불화, 신용경력의 손상으로 인한 실업의 악순환(삼성경제연구소, 2003), 파산신청, 대학생의 자살을 증가로도 이어지고 있다.

몇몇의 학자들은 젊은이들 사이에 신용카드 부채와 개인 파산의 증가는 신용카드의 쉬운 이용가능성과 연결되어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Mcbride, 1997). 즉, 오늘날 대학생들에게 신용카드가 공격적으로 마케팅 되어 왔기 때문에(Coulton, 1996; Ritzer, 1996) 신용카드를 더욱 쉽게, 그리고 자신의 지불능력을 초과해서 쓸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대학생들은 소비자신용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상황에서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 신용, 부채 등에 대해 과거에 비해 더 관대해지고 있다(Ritzer, 1996). 특히 대학생들은 신용카드를 비롯한 신용 이용에 대한 이해의 부족으로 신용카드를 마이더스의 손으로 인식하며, 신용관리 및 화폐관리의 중요성이나 관련지식에 대한 인지가 부족한 상태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한국소비자보호원(2003)의 신용카드 의식조사에서 '신용카드가 충동구매나 과소비로 초래한다'에 대해 각각 89%, 87%가 '그렇다'라고 응답했으며, 20대의 연체율도 30%정도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대학생소비자들을 대상으로 건전한 소비가치관, 신용카드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함께 인지할 수 있는 정확한 지식, 신용카드의 효율적인 사용방법 등에 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특히, 대학생들의 현재 소비습관은 성인의 소비행동유형을 결정하며, 가족내에서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그 영향력이 매우 큰 집단이라는 점을 고려해볼 때 이들을 대상으로 한 신용카드 사용행동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와 교육은 매우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신용카드에 관한 연구는 주로 경영학, 법학 분야에서 다루어져 왔으며, 신용카드 산업의 활성화 방안이나 신용카드 관련 소비자행동 및 마케팅, 신용카드에 대한 법적 구조에 관한 연구가 대부분이다. 소비자학 분야에서는 신용카드 사용과 가계관리, 소비자의 신용카드 기능에 대한 인식, 신용카드 사용행동에 대한 실태조사, 신용카드 관련 피해사례와 대처방법에 관한 연구들로 신용카드 사용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규명하려는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신용카드 사용행동을 다룬 기존의 연구(김지연, 2001; 서경의, 1997)도 신용카드 사용행동을 신용카

드 보유수, 사용횟수, 사용금액만 고려했을 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부채 즉, 현금서비스 이용횟수/금액, 연체경험 등은 고려되지 않았으며, 신용카드 사용행동과 관련된 변수도 주로 사회인구학적 변수만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특히 신용카드 사용행동은 지불행동의 한 유형으로 사회인구학적 변수 뿐 아니라 신용카드에 대한 태도, 지식, 예산을 세우거나 지출계획을 세우는 등의 재무관리습관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신용카드를 소지·사용하고 있는 대학생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신용카드 사용행동의 일반적인 경향을 알아보고, 신용카드에 대한 태도 및 지식, 재무관리습관과 신용카드 사용행동(현금서비스 이용횟수/금액, 연체경험)은 관련변수에 따라 어떻게 영향을 받고 있는가를 조사함으로써, 신용카드 사용행동과 관련변수들간의 인과관계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대학생들의 신용카드 사용행동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학생들의 합리적인 신용카드 사용을 위한 소비자교육 및 소비자정보 제공에 유용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II. 이론적배경

1. 신용카드의 기능

신용카드는 소비자신용(Consumer Credit)의 일종으로, 통화수단으로서의 지불수단기능, 소비자신용기능, 신분증명기능, 외환기능, 인출확인 및 정보확인 기능, 우대기능, 예약·예매기능, 보험기능, 통신판매기능 등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 중에서 소비자들에게는 지불수단과 신용의 원천이 신용카드가 갖는 대표적 기능이다(Ausubel, 1991; Chakravorti, 1997; Chakravorti & Emmons 2001; Starvins, 2000).

먼저, 지불수단기능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현금지급을 대리하는 직불기능과 일정 기간 이자를 약정하고 카드사가 물품대금을 대신 지급하면 이를 나중에 갚아나가는 형식으로 현금가격을 분할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다. 직불기능은 항상 현금과 수표를 휴대하고 다닐 필요가 없도록 하는 현금 대체적인 성격을 가지며, 전화나 인터넷 거래와 같은 구매형태에 있어서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다. 할부기능은 미래의 가치를 카드사를 통해 현재 가치로 전환하여 사용한다는 점에서 대출 대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또한, 소비자신용기능은 개방적이고 쉽게 이용 가능한 신용출처로서 현금서비스, 카드론 등 주로 신용카드의 유동성과 관련된 기능이다. 특히, 과거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기관의 신용대출 상품이 부족하여 사채의 의존이 높았는데, 신용카드의 등장으로 소액, 단기대출에 대한 소비자들의 수요를 신용카드가 충족시켜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대출을 위한 시간과 노력 등의 거래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그들의 신용한도 내에서 자금의 조달과 운용이 용이해졌다.

1) 20대의 신용불량자 비율: 2001(16.7%), 2002(18.5%), 2003(19.7%), 경제활동인구 대비 개인 신용불량자 비율: 2002(12.0%), 2003(17.9%).

2. 신용카드 사용행동

우리나라는 경제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정부차원의 신용카드 장려책과 카드사의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카드사용량이 급속히 증가하였다. 현재, 2003년 4/4분기를 중심으로 신용카드 발급매수는 95,517천매로, 1999년(38,993천매)에 비해서는 약 2.5배 정도 증가한 추세이다. 이를 우리나라의 경제활동인구²⁾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1인당 평균 약 4.2매의 신용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셈이다.

또한, 신용카드 이용금액도 2003년 4/4분기를 기준으로 4,805,437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이를 용도별로 보면 현금서비스(1,381,123억원), 일시불구입(1,013,448억원), 할부구입(258,188억원) 순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신용카드 사용의 증가와 함께 신용카드와 관련된 소비자문제도 역시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신용카드의 이용은 가계의 재정부담을 감소시켜 금융관리에 융통성을 주고, 국가경제주체간의 투명한 거래를 촉진시키는 등의 이점이 있으나, 올바로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우리의 소비생활과 경제생활에 타격과 위기를 몰고 올 수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의 「2003년도 소비자상담·피해구제 동향」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총 43만 7천여건의 ‘소비자상담’ 가운데 신용카드에 대한 불만 상담이 15,372건(전체의 4.8%)으로 가장 많았다고 밝히고 있다. ‘신용카드’ 상담이 가장 많은 이유로는 가계부채 증가로 인한 카드연체 증가 및 신용카드 사용빈도 축소에 따른 것으로, 주요 상담 내용은 “철회·항변권 문제, 부정사용 대금에 대한 보상 문제, 명의도용 등 부정발급으로 인한 피해, 카드사의 과도한 채권 추심 행위, 가족의 카드대금 연체에 대한 변제책임, 카드연체로 인한 신용불량 등재”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계의 금융문제와 개인과 산증가에 있어서 신용카드 빚이 주요 원인이었다는 Brobeck (1997)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결과이기도 하다.

대학생소비자를 대상으로 신용카드 사용행동을 조사한 연구에서는 신용카드 사용 후 소비자층 변화에 대해 63.7%의 학생들이 ‘매우 증가하였거나 다소 증가’라고 응답하여 파인구메나 충동구매 행동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연체경험(20.8%)이나, 신용불량요건·연체이자에 대해 ‘모른다’는 응답이 각각 41.2%, 39.1%로 나타나 많은 대학생들이 신용카드 사용과 관련된 소비자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YMCA, 2001).

김경자·홍정하(2002)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신용카드 보유자의 15%가 연체를 경험하고 있으며, 연체금 조달방법으로는 84%는 스스로 벌어서, 16%는 부모님이나 친구에게 빌리거나 아직 갚지 못한 상태라고 응답했다. 서인주(2003)의 연구에서도 연체경험(45.1%)이나 현금서비스 경험(57.2%)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으며, 신용불량자 경험도 5.5%로 나타나고 있다.

국민은행연구소(2002)의 한국, 미국, 일본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신용카드 이용현황과 관련인식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신용

카드 보유율은 우리나라가 32.3%로 미국(58.3%)과 일본(51.5%)보다 낮는데 비해, 신용카드 결제대금 부족 경험은 일본의 3배, 결제대금 부족시 카드로 돌려 막았다는 비율도 미국의 2배정도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해 보면, 대학생의 신용카드 사용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3. 신용카드 사용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 사회인구학적 변인

(1) 성별

신용카드 사용과 사용금액은 남성이 여성보다 많이 사용하는 것(조의준, 1994)으로 나타난 반면에 신용카드 이용 빈도와 성별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고 보고한 연구(박선태, 1995)도 있다.

한편, 신용카드에 대한 태도는 남성이 여성보다 더 우호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Xiao et al., 1995), 신용카드 사용행동은 여성이 남성보다 합리적인 것으로 나타났다(박근주, 1990). 따라서 성별에 따라 신용카드 사용행동이 다를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2) 연령

연령은 신용카드 사용과 관계가 있으며, 노년층보다는 20-30대의 젊은 층이 더 많이 사용한다고 보고하고 있다(심영, 1985; White, 1975). 이러한 결과들은 신용카드 사용에 있어서 나이의 부정적인 영향의 결과(Adcock et al., 1977; Awh & Waters, 1974)들을 뒷받침하고 있어서 대학생의 경우도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반면에 가장의 연령과 제날짜에 신용카드 이용액을 상환하는 카드이용자와의 사이에는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다고 밝혔다(Canner & Cymak, 1986; 남정숙·계선자, 1990 : 23에서 재인용). 또한, 연령과 신용카드 사용액에 있어서는 연령이 높을수록 신용카드 사용액이 많다는 결과(이상영, 1995; 최재복, 1995)와 반대로 연령과 신용카드 사용빈도 간에는 유의미한 관계가 없다는 연구도 있다(박선태, 1995; 조의준, 1994).

(3) 가계소득 및 용돈의 크기

관련연구(김지연, 2001; Plummer, 1971)에 따르면, 가계소득 수준이 높은 가정이 낮은 가정보다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경향이 높으며, 신용카드 사용금액도 가계소득이 증가할수록 사용금액이 증가한다고 하였다. 즉, 소득에 따라 신용카드 사용행동이 달라진다는 점에서 대학생의 경우, 용돈의 크기에 따라 신용카드 사용행동이 다를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신용카드 대금지불에 있어서는 수입이 높은 신용카드 이용자 들은 매달 제 때에 사용액 전액을 상환하는 경우가 더 많고, 유동자산의 비율이 높은 계층은 언제나 제 때에 상환하고 있다고 하였다.

2) 우리나라 경제활동인구: 22,922천명(통계청, 2003년 12월 말 기준)

한편 용돈의 크기에 따른 소비자 행동을 살펴보면, 김영신(2001)은 용돈의 크기와 강박적 구매는 정의관계를 보인다고 하였으며, 홍은실·황덕순(2002)은 용돈의 액수가 많을수록 수입을 초과하는 지출이나 지출후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않음으로 재정적인 압박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Davies & Lea(1995)의 연구에서도 고소득을 가진 학생들이 빚이 많은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용돈의 크기에 따라 소비자행동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신용카드 사용행동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4) 부모의 교육수준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소비자의 신용사용에 대해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Zhu & Meeks(1994)의 연구에서도 교육수준이 높은 소비자들은 소비자 신용을 사용할 필요성이 더 많았다고 하였다.

또한,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신용카드의 보유 및 사용경험이 증가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서경의, 1997). 신용카드의 사용액은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신용카드 사용액이 많았다고 보고하는 연구(최재복, 1995)가 있는 반면에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신용카드 사용빈도(최동숙, 1985)나 사용액(김지연, 2001)이 많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한편, Shepard(1984)의 연구에서는 가장이 고졸자인 가계가 대출자인 가계에 비해 소비자 신용으로 인한 소비자 파산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 부모의 교육수준에 따라 신용카드 사용행동이 다를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5) 재무관리 수강경험

요즘의 대학생들은 소비에 대한 기술은 습득하면서 아직 저축이나 금전 관리에 대한 개념을 형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다(Lowell, 1995). 특히 우리나라는 개인재무관리 교육에 대해 아주 미약한 실정인데, 국민은행연구소(2002)에 따르면, 한·미·일 대학생들의 학교에서 금융교육경험(복수 응답)이 일본은 4.2회로 가장 많고, 미국이 2.8회, 한국은 1.5회 수준으로 매우 낮다고 밝히고 있다.

재무관리 수강경험과 신용카드 사용행동에 관한 구체적인 연구들을 살펴보면, Markovich & Devaney(1997)의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이 개인금융강좌 수강을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개인금융강좌가 금융지식에 매우 도움이 된다고 하였으며, Churaman (1988)은 금융강좌를 수강한 학생들이 그들의 충동적인 행동을 통제할 필요성을 인식했다고 하였다. 따라서, 재무관리 수강경험에 따라 신용카드 사용행동이 다를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2) 신용카드에 대한 태도 및 지식, 재무관리습관

(1) 신용카드에 대한 태도

일반적으로 신용카드에 대한 태도는 신용카드 사용에 대하여

가지는 지속적인 호의적 또는 비호의적 성향을 뜻하는 것(Awh & Waters, 1974)으로, 신용카드에 대한 태도는 신용카드 사용행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Xiao et al, 1995). 즉, 신용카드에 대해 우호적인 사용자가 덜 우호적인 사용자보다 신용카드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Awh & Waters, 1974), 신용카드를 많이 쓰는 사람과 신용카드를 잘 쓰지 않는 사람들을 구별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Kaynak et al, 1986).

Kaynak 등(1986)은 신용카드에 대한 태도를 신용카드를 사용하려는 태도,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으려는 태도, 내향적인 태도, 외부지향적인 태도 등 4가지로 구분하여 신용카드 사용금액과의 관련성을 연구했다. 연구결과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으려는 태도와 내부지향적인 태도는 총 사용금액과 부적인 관련이 있으며, 신용카드를 사용하려는 태도와 외부지향적인 태도는 총 사용금액과 정적인 관련성이 있어 가능한 한 많이 그들의 신용카드를 지출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경의(1997)의 연구에서도 신용카드에 대해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대학생소비자가 신용카드를 보유하고 사용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신용카드에 대한 태도에 따라 신용카드 사용행동이 다를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한편, 신용카드에 대한 태도는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데, Joo 등(2003)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신용카드에 대한 태도는 인종, 어려울 때 부모들의 신용카드 사용, 신용 카드 소유, 학년, 금전에 대한 윤리, 통제의 주체 등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고 했다.

Xiao 등(1995)은 대학생소비자를 대상으로 신용카드에 대한 태도를 전반적 태도, 감정적 태도, 인지적 태도, 행동적 태도로 구분하여 여러 배경변수들간의 태도 차이를 제시했다. 대학생들은 일반적으로 신용카드에 대해서 우호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으며,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소비자학 전공이 다른 전공분야들보다, 캠퍼스 안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캠퍼스 밖에 거주하는 학생들보다, 근로시간이 주당 20시간 미만인 학생들이 주당 20시간 이상인 학생들보다,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신용카드가 없는 학생들보다, 신용카드 사용횟수가 많은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부모님과의 공동소유인 카드가 많은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신용카드에 대해 더 호의적인 태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Hayhoe 등(1999)의 연구에서도 신용카드에 대한 감정적인, 인지적인, 행동적인 요인들에 관해 태도를 측정된 결과, 4개 이상의 신용카드를 가진 학생들은 감정적인 태도에서 높은 점수를 나타내 Xiao 등(1995)의 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2) 신용카드 지식

소비자지식은 소비자능력의 인지적 영역으로서, 지식을 가진 소비자는 현명한 의사결정을 함으로써 스스로의 이익을 돌볼 수 있으며, 그들의 무지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Swagler, 1979). 그러나, 소비자들은 신용카드에 대한 지식이

매우 부족하다. 특히 수수료나 이자율에 대한 지식은 없고, 신용카드 약관에 대한 지식은 매우 낮았다(Edwards, 1982).

한국소비자보호원(2003)이 신용카드 보유자 전체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신용카드 회원약관, 현금서비스 이자율·할부수수료율·연체이자율, 신용카드 피해보상제도, 신용불량자 등록요건에 대해 '전혀 모른다'가 53~64%로 나타나 신용카드 보유대상자 중 절반 이상이 신용카드 전반에 관한 지식이 매우 부족함을 시사하고 있다. 이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신용불량요건이나 연체이자에 관해서 '모른다'는 응답이 각각 41.2%, 39.1%로 나타나 신용카드 위험요소에 대한 지식이 낮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YMCA, 2001). 주부들의 신용카드에 관한 지식을 분석한 임정빈·이영호(1991)의 연구에서도, 주부들은 신용카드 관리에 필요한 지식수준이 매우 낮으며, 특히 신용카드의 선택이나 사용에 있어서 어떠한 카드가 가장 효율적인지를 판단해 줄 수 있는 연체율이나 도난 분실시의 보상범위에 관한 지식이 매우 희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신용카드에 대한 지식이 신용카드 사용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신용카드 지식이 높을수록 합리적으로 소비하며 현금보다 신용카드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연구결과(박근주, 1990; 서경의, 1997)와 반면에 신용카드 지식수준이 높을수록 연체경험이 높다는 연구결과(이재희, 1996)도 있다. 또한 신용카드 사용지식과 신용카드 사용행동이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는 연구결과(Danes & Hira, 1990)도 있다. 따라서, 신용카드에 대한 지식과 사용행동에 대해서는 일관된 결과를 보이고 있지 않다.

(3) 재무관리습관

대학생 시기를 포함한 청소년 시기는 재무관리습관에 대한 기초 개념을 학습하고, 여러 가지 재무관리 기술을 습득하여 자신의 재무관리를 준비해야 할 중요한 시기이다.

재무관리습관은 개인의 경제적 안정과 성장을 위해 개인이 가진 자원을 극대화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서 예산 세우기, 구매목록 작성, 구매한 것에 대한 후회도, 영수증 보관, 지출계획 세우기 등의 재무관리 행동을 말한다. 하지만, 요즘의 대학생소비자들은 대부분 물질적 풍요와 신용이 당연시되는 사회에서 자라 재무계획을 세우거나 소비를 통제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Lowell, 1995; Ritzer, 1995). Jump & Start Coalition for Personal Financial Literacy(2003)에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학생들은 평균적으로 재정적인 문제를 관리하는 능력이 부족하다고 한다(<http://www.jumpstart.org>). 즉 대다수의 많은 젊은 학생들은 첫 신용카드 관리에 실패하고 바르지 못한 재정관리 습관을 형성하며, 시행착오를 거쳐 많은 시간과 금전을 소모하면서 재정적 관리능력을 배우게 된다는 것이다.

Baek(2001)은 미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재정문제에 대한 관심과 그들이 겪는 재정문제를 조사했는데, 조사대상자의 26%가

재정문제, 34%는 소비와 관련된 문제를 겪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재정적인 문제의 내용으로는 예산관리를 하는 학생이 16%에 불과할 정도로 충동구매에 의한 예산생활의 어려움과, 신용카드 대금을 전액 상환하지 못하고, 최소한의 하한선만 결제하는 학생이 24%나 될 정도로 부채상환의 어려움을 들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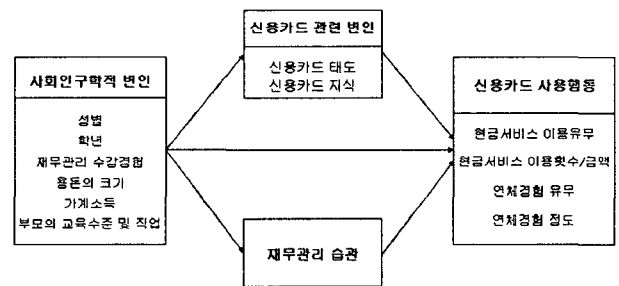
한편, 재무관리습관에 따른 신용카드 사용행동에 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데, Markovich & Devaney(1997)의 연구에서는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매달 전액 지불하는 학생들이 그렇지 못한 학생들보다 부채가 적은 것으로 나타나, 재무관리습관과 부채의 크기가 관련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서, 재무관리습관이 신용카드 사용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재무관리습관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데, 홍은실·황덕순(2002)은 용돈이 적을수록 주어진 용돈의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수입과 지출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경향이 높다는 결과로, 월 용돈액이 재정관리의 평가행동에 부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김효정(1999)도 월가계 생활비가 적을수록 보다 합리적으로 재무관리를 한다고 하였다.

III. 조사방법 및 절차

1. 연구모형 및 연구문제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젊은 세대를 대표하는 대학생들의 신용카드 사용행동 중 현금서비스 사용행동과 연체행동이 관련변수에 따라 어떻게 영향을 받고 있는가를 밝히는데 있다. 본 연구를 위한 연구모형과 이에 따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그림 1> 연구 모형

- 연구문제 1: 대학생소비자의 신용카드 사용행동(현금서비스 사용행동과 연체행동)에 대한 일반적 경향은 어떠한가?
- 연구문제 2: 신용카드 사용행동의 매개변수인 신용카드에 대한 태도 및 지식, 재무관리습관은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어떠한 영향을 받는가?
- 연구문제 3: 신용카드 사용행동은 사회인구학적 변인, 신용카드에 대한 태도 및 지식, 재무관리습관에 따라 어떠한 영향을 받는가?

2. 측정도구

각 변수의 척도 구성은 <표 1>과 같으며, 척도의 타당도는 소비자학 전공 교수 5인에게 내용타당도(contents validity)를 검증 받았다.

3.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신용카드 사용행동(현금서비스 사용행동과 연체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인과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현금서비스와 할부기능이 있는 신용카드를 소지·사용 중인 대학생소비자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대전광역시 4년제 대학 4곳(C, H, D, M 대학)을 택하였으며, 전공의 특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교양과목을 듣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조사에 앞서 1차례의 예비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결과분석 후 질문지의 일부문항을 수정·보완하여 재구성하였다. 본 조사는 2003년 11월 10일부터 11월 24일까지 2주간 실시하였고, 총

500부를 배부하여 수집된 자료 중 기재가 누락된 자료를 제외한 총 434부가 분석의 자료로 사용되었다.

4. 분석방법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과 신용카드 사용행동(현금서비스 사용행동과 연체행동)의 일반적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 분포,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를 알아보았다. 신용카드 사용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을 실시하였으며, 연구모형에 기초한 인과모형을 검토하기 위해서 경로분석(Path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이상의 통계처리는 SPSS 10.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5.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표 1> 척도의 구성

변수	참조한 연구	문항수	측정방법	신뢰도
신용카드에 대한 태도	Rajecki(1982), Xiao et al.(1996)	36	5점 척도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임)	.871
신용카드에 대한 지식	김경자·홍정하(2002), 서경의(1997), 한국소비자보호원(2003), YMCA(2001)	11	3점 척도 (점수가 높을수록 지식이 높음)	.855
재무관리습관	Baek(2001), Hayhoe et al.(2000), Walker(1996), Williams(1991)	8	5점 척도 (점수가 높을수록 합리적임)	.740

<표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N=434)

변수	구분	빈도(%)	변수	구분	빈도(%)	
성별	남	201(46.3)	아버지 직업*	무직·단순노동	23(5.4)	
	여	233(53.7)		숙련직	42(9.8)	
연령	19세 이하	25(5.8)		판매직	41(9.6)	
	20-21세	104(24.0)		자영업자	107(24.9)	
	22-23세	166(38.2)		사무직	76(17.7)	
	24세 이상	139(32.0)		관리직	82(19.1)	
학년	1	41(9.4)		전문직	58(13.5)	
	2	126(29.0)		전업주부	전업주부	274(63.4)
	3	129(29.7)			비전문직	120(27.8)
	4	138(31.8)		전문직	38(8.8)	
월평균 용돈액	20만원 미만	80(18.4)	가계소득	150만원 미만	59(13.6)	
	20-30만원 미만	143(32.9)		150-250만원 미만	120(27.6)	
	30-50만원 미만	112(25.8)		250-400만원 미만	152(35.0)	
	50만원 이상	99(22.8)		400만원 이상	103(23.7)	
아버지 교육수준*	중졸이하	56(13.1)	재무관리 수강경험	없다	260(59.9)	
	고졸	172(40.1)		1과목	96(22.1)	
	대졸	167(38.9)		2과목	44(10.1)	
	대학원이상	34(7.9)		3과목 이상	34(7.8)	
어머니 교육수준*	중졸이하	94(21.8)				
	고졸	227(52.5)				
	전문대이상	111(25.7)				

* 결측값으로 인하여 빈도의 차이가 있음

IV. 연구 결과 및 해석

1. 대학생소비자 신용카드 사용행동의 일반적 경향

본 연구는 신용카드를 소지·사용하고 있는 대학생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신용카드 사용행동의 일반적 경향을 알아보았다(<표 3> 참조). 조사결과 대상자의 39.6%는 현금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데 반해, 60.4%에 해당하는 262명은 현금서비스를 1회 이상 사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금서비스 이용금액도 50-100만원이 13.0%, 100만원 이상도 19.8%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연체와 관련해서는 조사대상자의 32%가 연체를 경험하였으며, 특히 연체경험(1년을 기준으로)이 3회 이상인 경우도 9%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체대금 결제방법은 '아르바이트'가 51.8%, '부모·가족의 도움'이 27.3%로 연체자들의 반 정도가 자신들이 해결하고 있으며, 카드·사채 등의 방법을 이용하는 것도 7.9%로 나타나고 있다.

신용불량자 등록 경험이 있는 학생은 전체 응답자중 28명으로 6.5%를 차지하고 있어 수적으로 많지는 않더라도 대학생이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2. 신용카드에 대한 태도 및 지식, 재무관리습관의 일반적 경향

신용카드에 대한 태도는 36문항으로 36점부터 180점까지, 신용카드 지식은 11문항으로 11점부터 33점까지, 재무관리습관은 8문항으로 8점부터 40점까지의 범위를 가진다. 각각의 척도는 점수가 높을수록 신용카드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며, 신용카드 지식수준이 높고, 재무관리습관이 합리적인 것을 의미한다.

신용카드에 대한 태도 및 지식, 재무관리습관은 점수분포에 따라 上집단(M+S.D/2이상), 中집단(M-S.D/2~M+S.D/2), 下집단(M-S.D/2이하)인 세 집단으로 분류하였으며, 대학생소비자의 신용카드에 대한 태도 및 지식, 재무관리습관의 일반적 경향은 <표 4>와 같다.

신용카드에 대한 태도는 조사대상자들의 분포범위가 최저 55점에서 최고 153점이며, 평균은 102.65(2.85/5)점, 표준편차는 13.77로 신용카드에 대한 태도가 중간점 보다 약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카드 지식은 조사대상자들의 분포범위가 최저 11점에서 최고 33점이며, 평균은 21.33(1.93/3)점, 표준편차는 4.80으로 대학생소비자들의 신용카드 지식의 수준이 중간점 이상인 것으로

<표 3> 대학생소비자의 신용카드 사용행동의 일반적 경향(N=434)

변수	구분	빈도(%)	변수	구분	빈도(%)	변수	구분	빈도(%)
현금 서비스 이용횟수	없다	172(39.6)	현금 서비스 이용금액	10만원 미만	54(20.6)	연체대금 결제방법	아르바이트	72(51.8)
	1-3회	134(30.9)		10-30만원미만	64(24.4)		부모, 가족	38(27.3)
	4-5회	60(13.8)		30-50만원미만	58(22.1)		친구	9(6.5)
	6-9회	24(5.5)		50-100만원미만	34(13.0)		카드돌려막기	7(5.0)
	10회이상	44(10.1)		100만원이상	52(19.8)		사금융(사채)	4(2.9)
연체 경험	없다	295(68.0)	카드사용 빚부담	전혀그렇지않다	76(17.5)		신용 불량자 경험	기타
	1-2회	100(23.0)		그렇지 않다	100(23.0)	있다		28(6.5)
	3-4회	33(7.6)		그저 그렇다	127(29.3)	없다		406(93.5)
	5회이상	6(1.4)		그렇다	131(30.2)			

* 결측값으로 인하여 빈도의 차이가 있음

<표 4> 신용카드에 대한 태도 및 지식, 재무관리습관의 측정 점수 분포(N=434)

변수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신용카드 태도	上(111-153)	118	27.2	102.65 (2.85) ^a
	中(97-110)	194	44.7	
	下(55-96)	122	28.1	
신용카드 지식	上(25-33)	108	24.9	21.33 (1.93) ^b
	中(20-24)	176	40.6	
	下(11-19)	150	34.6	
재무관리습관	上(29-40)	110	25.3	25.43 (3.17) ^a
	中(24-28)	176	40.6	
	下(12-23)	148	34.1	

a : 5점 만점으로 환산했을 경우의 평균값임,
b : 3점 만점으로 환산했을 경우의 평균값임

나타났다.

재무관리습관은 조사대상자들의 분포범위가 최저 12점에서 최고 40점이며, 평균은 25.43(3.17/5)점, 표준편차는 4.90으로 대학생소비자들의 재무관리습관은 중간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3. 현금서비스 사용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신용카드를 소지·사용하고 있는 대학생들의 현금서비스 사용행동과 연계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변수들 간의 관계를 보다 구체화하기 위해 연구모형을 기초로 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분석에 앞서 성별, 재무관리 수강경험, 아버지의 직업은 가변수(dummy variable)로 전환하였다. 용돈의 크기와 가계소득은 각 범주의 중앙값(단위 만원)으로 환산하였고, 아버지의 교육수준은 교육년수로 환산하여 사용하였다. 어머니의 직업은 ANOVA 검증에서 유의미하지 않아 회귀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어머니의 교육수준은 아버지의 교육수준과의 상관관계($r=.709, p<.001$)가 높아 분석에서 삭제하였다. 아버지의 배경요인 중 교육수준 및 직업은 가계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나타내며, 이는 구매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변수이므로 고려되었다. 이외의 변수들은 연속변수로 응답자의 원점수를 그대로 분석에 사용하였다.

다중회귀분석의 분석방법은 stepwise를 사용하였으며, 이에 앞서 회귀모형에 대한 기본 가정을 충족시키기 위해 잔차분석을 한 결과 표준화된 잔차가 정규분포에 가깝고, 도식화에서 잔차변동이 체계적인 양상을 보이지 않았으며, 오차항의 자기상관은 없었다. 또한, 변수들의 다중공선성을 알아보기위해 상관관

계를 조사한 결과 변수들간의 상관관계는 모두 0.4이하로 독립 변수들간의 독립성이 대체로 보장되었다고 볼 수 있다.

1) 현금서비스 이용여부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현금서비스 이용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파악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5>을 살펴보면, 본 연구의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Chi-square=81.010, $P<.000$)하며, 현금서비스 이용여부를 바르게 예측할 가능성은 69.7%임을 알 수 있다.

이들 변수 가운데, 현금서비스 이용여부에 영향력을 미치는 변수는 학년, 재무관리습관, 신용카드 지식 등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학년이 낮을수록 현금서비스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학년이 낮을수록 현재의 소득이나 용돈으로 충족되지 못한 소비욕구를 현금대체기능인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즉각적인 만족을 얻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저학년들의 신용카드 가치관교육의 중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매개변수인 신용카드 지식과 재무관리습관은 신용카드 지식이 높을수록, 재무관리습관이 비합리적일수록 현금서비스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현금서비스 사용행동만이 아닌 모든 부채행동(현금서비스, 신용카드 부채, 학자금 융자, 가족 및 친구로부터의 부채)을 연구한 Davies & Lea (1995)의 연구에서 학년이 높을수록,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신용카드에 대한 태도가 호의적일수록 부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내고 있어 본 연구와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 5> 현금서비스 이용여부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독립변수	B	S.E.	Wald	sig.
성별(D ₁ =남)	.188	.229	.678	.410
학년	-.350	.117	8.924	.003
재무관리 수강경험(D ₁ =있다)	.347	.229	2.292	.130
용돈의 크기	-.004	.007	.244	.622
가계소득	.001	.001	.588	.443
父 교육수준	-.081	.047	2.959	.085
父직업1(D ₁ =단순노동·숙련직)	-.667	.408	2.676	.102
父직업2(D ₁ =판매·자영업자)	-.365	.308	1.406	.236
父직업3(D ₁ =사무직)	-.421	.349	1.454	.228
신용카드 태도	.010	.009	1.229	.268
신용카드 지식	.129	.025	26.147	.000
재무관리습관	-.159	.026	36.151	.000
상수	3.323	1.335	6.191	.013
예측 성공률	: 69.7%			
-2 LOG Likelihood	: 495.944			
df	: 12			
Model Chi-square	: 81.010***			

***p<.000

2) 현금서비스 이용횟수(정도) 및 금액에 대한 중회귀분석

현금서비스 이용횟수(정도) 및 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그 영향력의 크기를 알아보기 위해 현금서비스를 이용하는 대학생들(N=262)만을 대상으로 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표 6>을 살펴보면, 현금서비스 이용횟수는 가계소득, 재무관리습관에 영향을 받고 있으며, 설명력은 6.3%이다. 즉 가계소득이 높을수록($\beta=.184$) 현금서비스 이용횟수가 가장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매개변수인 재무관리습관은 재무관리습관이 비합리적일수록($\beta=-.170$) 현금서비스 이용횟수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현금서비스 이용금액은 가계소득, 재무관리습관, 용돈의 크기의 순으로 이 변수들의 설명력은 14.6%이다. 즉 가계소득과 용돈의 크기는 현금서비스 이용금액에 정적인 효과로 가계소득이 높을수록($\beta=.206$), 용돈이 많을수록($\beta=.166$) 현금서비스 이용금액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매개변수인 재무관리습관은 현금서비스 이용금액에 부적인 효과로 재무관리습관이 비합리적일수록($\beta=-.191$) 현금서비스 이용금액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를 Davies & Lea(1995)의 연구와 비교해 보면, 부채수준은 성별, 연령에 영향을 받지 않고 있어서

본 연구의 현금서비스 이용금액과 일치된 결과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신용카드에 대한 태도가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고, Davies & Lea(1995)의 연구에서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편, 현금서비스 사용행동의 매개변수인 재무관리습관에 대한 사회인구학적 변수의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재무관리습관은 용돈의 크기와 재무관리 수강경험에 영향을 받고 있으며, 그 설명력은 4.6%이다. 즉, 용돈이 적을수록($\beta=-.191$), 재무관리 수강경험이 있는 집단($\beta=.121$)이 재무관리습관이 합리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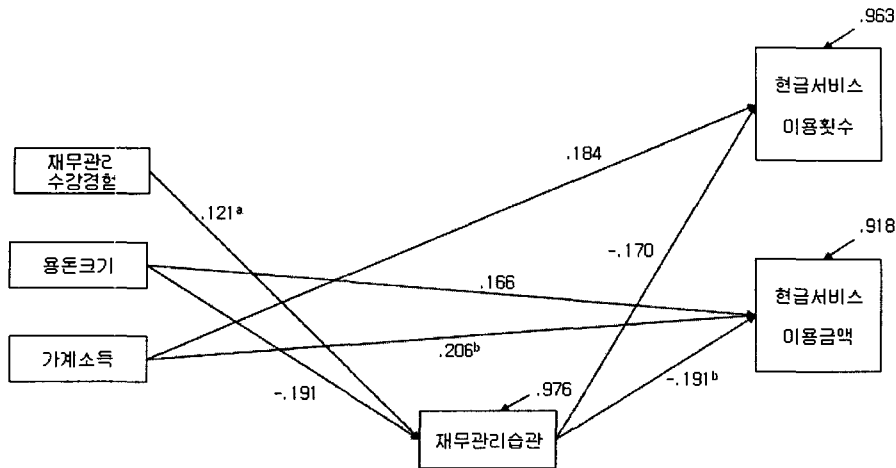
이상을 종합해보면, 현금서비스 이용횟수에 대한 인과관계는 <그림 2>와 같고, 인과모형에서 각 변수들의 인과적 효과를 분해해보면 <표 7>과 같다. 즉 재무관리 수강경험과 용돈의 크기는 현금서비스 이용횟수의 매개변수인 재무관리습관을 통한 간접적인 영향만을 미치는데, 그 크기는 각각 -.020, .032이다. 즉, 재무관리 수강경험이 있는 집단이 재무관리습관이 합리적으로 나타나 현금서비스 이용횟수가 낮게 나타나는 반면에 용돈이 많을수록 재무관리습관이 비합리적인 것으로 나타나 현금서비스

<표 6> 현금서비스 사용행동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변수	현금서비스 이용횟수B(β)	현금서비스 이용금액B(β)	재무관리습관 B(β)
성별(D ₁ =남)			
학년			
재무관리 수강경험(D ₁ =있다)			1.118(.121)*
용돈의 크기		.342(.166)**	-.051(-.191)**
가계소득	.001(.184)**	.055(.206)***	
父 교육수준			
父직업1(D ₁ =단순노동·숙련직)			
父직업2(D ₁ =판매·자영업자)			
父직업3(D ₁ =사무직)			
신용카드 태도			-
신용카드 지식			-
재무관리습관	-.042(-.170)**	-1.463(-.191)***	-
상수	3.472	52.159	25.703
R ²	.071	.156	.063
Adj-R ²	.063	.146	.046
F	9.677***	15.704***	7.126***

p<.01 *p<.001

- : 변수가 포함되지 않은 것을 의미함



a : p<.05 수준에서, b : p<.001 유의한 것이며, 표기되지 않은 것은 p<.01수준에서 유의한 것임

<그림 2> 현금서비스 이용횟수 및 금액에 대한 경로 모형

스 이용횟수는 높게 나타나고 있다.

가계소득은 현금서비스 이용횟수에 미치는 총인과효과 크기가 가장 큰 변수다. 이러한 효과는 직접적으로 정적인 효과를 미치며, 그 크기는 .184로 가계소득이 높을수록 현금서비스 이용횟수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매개변수인 재무관리습관은 현금서비스 이용횟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그 크기는 -.170이다. 즉, 재무관리습관이 비합리적일수록 현금서비스 이용횟수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현금서비스 이용금액에 대한 인과관계는 <그림 2>와 같고, 인과모형에서 각 변수들의 인과적 효과를 분해해보면 <표 8>와 같다. 재무관리 수강경험은 매개변수인 재무관리습관을 통해 현금서비스 이용금액에 간접적인 영향만을 미치는데, 그 크기는

-.023으로 재무관리 수강경험이 있는 집단이 재무관리습관이 합리적으로 나타나 현금서비스 이용금액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용돈의 크기는 현금서비스 이용금액에 직접,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러한 효과는 매개변수인 재무관리습관을 통한 간접적인 효과(.036)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직접적인 효과(.166)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즉 용돈이 많을수록 재무관리습관이 비합리적으로 나타나 현금서비스 이용금액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용돈의 크기에 따른 직접적인 효과에 의해 더 큰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신용카드를 소지·사용하고 있는 대학생들의 용돈이 많을수록 건전하고 바람직한 소비생활을 영위하고 있지 못함을 시사하고 있는 것으로, 용돈이 많은 집단의 소비자교육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표 7> 현금서비스 이용횟수의 인과모델 총효과 분해

변수	총효과	인과적 효과		비인과적 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재무관리 수강경험	.043		재무관리습관: -.020	.063
용돈의 크기	.173		재무관리습관: .032	.141
가계소득	.204	.184		.020
재무관리습관	-.200	-.170		-.030

<표 8> 현금서비스 이용금액의 인과모델 총효과 분해

변수	총효과	인과적 효과		비인과적 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재무관리 수강경험	.028		재무관리습관: -.023	.051
용돈의 크기	.294	.166	재무관리습관: .036	.092
가계소득	.300	.206		.094
재무관리습관	-.256	-.191		-.065

가계소득과 매개변수인 재무관리습관은 현금서비스 이용금액에 직접적인 영향만을 미치는데, 즉 가계소득이 많을수록(.206), 재무관리습관이 비합리적일수록(-.191) 현금서비스 이용금액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4. 연체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1) 연체경험여부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연체경험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변수를 파악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9>을 살펴보면, 본 연구의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Chi-square=72.064, P<.000)하며, 연체경험여부를 바르게 예측할 가능성은 73.7%임을 알 수 있다.

이들 변수 가운데, 연체경험여부에 가장 영향력이 큰 변수는 재무관리습관이며, 신용카드 지식, 가계소득 등도 연체경험여부를 예측하는데 기여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매개변수인 재무관리습관은 부적효과로, 재무관리습관이 비합리적일수록 연체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앞으로 대학생들의 신용카드 사용이 증가할 것을 대비해 재무관리습관에 대한 소비자교육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신용카드 지식은 정적효과로, 신용카드 지식이 높을수록 연체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연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연체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 사전에 인지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으나, 이러한 추론을 위해서는 이와 관련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다음은 가계소득이 높을수록 연체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월용돈이나 생활비가 적을수록 주어진 범위내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재무관리를 한다는 연구결과(김효정, 1999; 홍은실·황덕순, 2002)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2) 연체경험 정도에 대한 중회귀분석

연체경험정도(횟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그 영향력의 크기를 알아보기 위해 연체를 경험한 대학생들(N=139)만을 대상으로 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표 10>을 살펴보면, 연체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신용카드 지식, 재무관리습관으로 이 변수들의 설명력은 6.0%이다. 즉 연체경험은 신용카드 지식이 높을수록($\beta=.215$), 재무관리습관이 비합리적일수록($\beta=-.214$) 높게 나타났다.

한편, 연체경험 정도의 매개변수인 신용카드 지식과 재무관리습관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인구학적 변수의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신용카드 지식은 성별에 따라서만 영향을 받고 있어서 남학생이 신용카드 지식이 높게 나타났으며($\beta=.187$), 그 설명력은 2.8%이다. 재무관리습관은 가계소득, 재무관리 수강경험에 따라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설명력은 8.7%다. 즉 가계소득이 낮을수록($\beta=-.244$), 재무관리 수강경험이 있는 집단($\beta=.188$)이 재무관리습관이 합리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9> 연체경험여부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독립변수	B	S.E.	Wald	sig.
성별(D1=남)	-.468	.239	3.831	.050
학년	.092	.122	.575	.448
재무관리 수강경험(D1=있다)	.371	.237	2.453	.117
용돈의 크기	.016	.008	3.845	.050
가계소득	.003	.001	6.345	.012
父 교육수준	.009	.051	.031	.859
父직업1(D1=단순노동·숙련직)	-.577	.429	1.807	.179
父직업2(D1=판매·자영업자)	-.496	.328	2.288	.130
父직업3(D1=사무직)	-.638	.375	2.889	.089
신용카드 태도	.010	.009	1.068	.301
신용카드 지식	.081	.026	9.539	.002
재무관리습관	-.173	.028	38.653	.000
상수	1.120	1.383	.656	.4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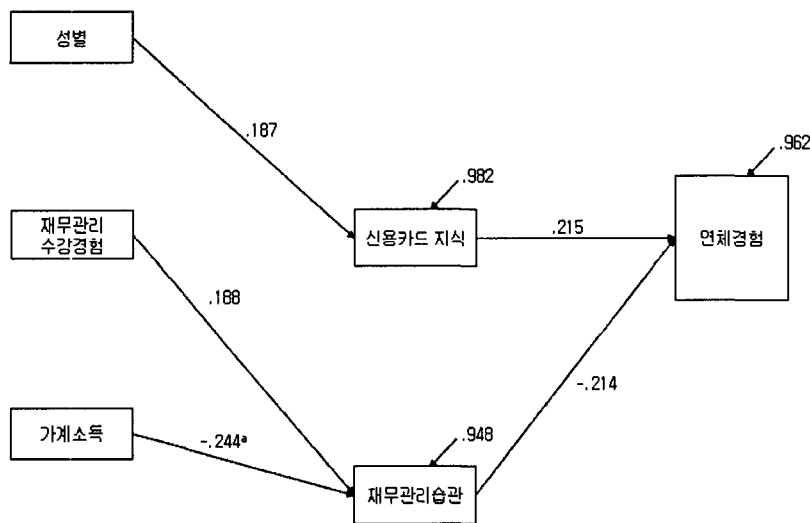
예측 성공률 : 73.7%
 -2 LOG Likelihood : 463.843
 df : 12
 Model Chi-square : 72.064***

***p<.000

<표 10> 연체경험 정도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변수	연체경험 B(β)	신용카드 지식 B(β)	재무관리습관 B(β)
성별(D ₁ =남)		1.529(.187)*	
학년			
재무관리 수강경험(D ₁ =있다)			1.562(.188)*
용돈의 크기			
가계소득			-.007(-.244)**
父 교육수준			
父직업1(D ₁ =단순노동·숙련직)			
父직업2(D ₁ =판매·자영업자)			
父직업3(D ₁ =사무직)			
신용카드 태도		-	-
신용카드 지식	.023(.215)*	-	-
재무관리습관	-.023(-.214)*	-	-
상수	1.295	21.455	24.831
R ²	.074	.035	.101
Adj-R ²	.060	.028	.087
F	5.298**	4.878*	7.469***

*p<.05 **p<.01 ***p<.001
 - : 변수가 포함되지 않은 것을 의미함



a : p<.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이며, 표기되지 않은 것은 p<.05수준에서 유의한 것임

<그림 3> 연체경험에 대한 경로 모형

이상을 종합해보면, 연체경험 정도에 대한 인과관계는 <그림 3>과 같고, 인과모형에서 각 변수들의 인과적 효과를 분해해보면 <표 11>와 같다. 즉 성별은 직접적인 영향은 미치지 않고 매개변수인 신용카드 지식을 통해 간접적인 영향만을 미치며, 그 크기는 .040이다. 즉, 남학생이 신용카드 지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연체경험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재무관리 수강경험은 매개변수인 재무관리습관을 통하여 간

접적인 영향만을 미치고 있으며, 그 크기는 -.040이다. 즉, 재무 관리 수강경험이 있는 집단이 재무관리습관이 합리적인 것으로 나타나 연체경험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금융강좌를 수강한 학생들이 그들의 충동적인 행동을 통제할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연구결과(Churaman, 1988)와 같은 맥락으로 올바른 재무 관리와 태도를 형성해 합리적인 재무관리습관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금융교육강좌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표 11> 연체경험의 인과모델 총 효과 분해

변수	총효과	인과적 효과		비인과적 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성별	-.036		신용카드 지식: .040	-.076
재무관리 수강경험	.102		재무관리습관 : -.040	.142
가계소득	.122		재무관리습관 : .052	.070
신용카드 지식	.149	.215		-.066
재무관리습관	-.182	-.214		.032

가계소득은 매개변수인 재무관리습관을 통한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그 크기는 .052로, 가계소득이 높을수록 재무관리습관이 비합리적인 것으로 나타나 연체경험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매개변수인 신용카드 지식과 재무관리습관은 연체경험에 미치는 총인과효과 크기가 가장 큰 변수로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신용카드 지식은 정적인 효과로 그 크기는 .215, 재무관리습관은 부적인 효과로 그 크기는 -.214로 나타났다. 즉, 신용카드 지식이 높을수록, 재무관리습관이 비합리적일수록 연체경험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신용카드를 소지·사용하고 있는 대학생소비자의 신용카드 사용행동 중 현금서비스 사용행동, 연체행동의 일반적인 경향을 알아보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들과의 인과관계를 파악함으로써 대학생들의 신용카드 사용행동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신용카드 사용을 위한 소비자교육 및 소비자정보제공에 유용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결과, 규칙적인 소득이 없이 신용카드를 소지·사용하고 있는 대학생에게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경험이 60.4%, 연체경험이 32%라는 것은 대학생소비자의 신용카드 사용행동에 문제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대학생소비자를 대상으로 합리적이고 책임감 있는 신용카드 사용행동을 위한 소비자교육이 필요하다. 특히 이러한 소비자교육에는 현금서비스이용, 연체등을 포함한 부채와 신용관리의 중요성, 합리적인 신용카드 사용방법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현금서비스 이용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학년, 재무관리습관, 신용카드 지식의 순으로, 특히 학년이 낮을수록 현금서비스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소비자교육이 신용카드를 소지하기 전 가능한 빠른 시기에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현금서비스를 이용하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현금서비스

이용정도와 금액의 크기에는 가계소득이 직접적으로 정적인 효과를 가장 크게 미치며, 재무관리습관, 용돈 크기의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계소득과 용돈이 많을수록 현금서비스 이용금액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대학생소비자의 경우 현금서비스 이용이 필수적인 소비생활을 위해서라기 보다는 무분별한 카드사용이나 과소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신용카드사용 소비자교육에서는 합리적인 소비생활, 소비에 대한 의미, 가치 등에 대한 교육도 함께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한편 현금서비스 사용행동의 매개변수인 재무관리습관은 재무관리 수강경험이 있는 경우, 용돈이 적을수록 재무관리습관이 합리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용돈이 많을수록 지출 후 수입과 지출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않으며, 용돈이 적을수록 주어진 용돈의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수입과 지출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경향이 높기 때문에 재무관리습관이 합리적인 것으로 보여진다.

셋째, 연체경험여부는 재무관리습관, 신용카드 지식, 가계소득에 따라 영향을 받고 있다. 연체정도는 신용카드 지식, 재무관리습관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무관리습관은 재무관리 수강경험이 있는 경우, 그리고 가계소득이 낮을수록 합리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최근 만연되고 있는 청년 신용불량자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재무관리교육이 대학의 정규교양과목으로 설치되거나, 적어도 대학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단기적인 재무관리교육이 반드시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가계소득이 높을수록 오히려 재무관리습관은 비합리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중고등학교시기에 경제소득수준이 높은 학생들을 대상으로한 금전관리교육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현금서비스 이용여부나 연체경험은 신용카드 지식에 의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신용카드 지식이 높을수록 현금서비스나 연체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으로서, 이는 현금서비스 이용전이나 연체경험 전에 이와 관련된 지식을 습득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신용카드의 올바른 사용을 위해서는 그들의 행동에 더욱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신용카드 회사는 관련 정보를 제공할 뿐 아니라 이

를 소비자가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에 비추어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본 연구는 신용불량자 경험여부에 관한 연구를 시도했지만 신용카드를 소지·사용하고 있는 대학생들 중 신용불량경험이 있는 대학생이 12명(6.5%)으로 사례수가 너무 적어 독특한 특성을 비교 검토하지 못하였다. 특히 20대의 신용불량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현시점에 비추어 볼 때 후속연구로 신용불량자와 비신용불량자간의 비교연구는 매우 필요하며, 이를 통해 20대의 신용불량자를 예방하고, 치유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신용카드 사용행동 중 현금서비스를 이용하는 집단과 이용하지 않는 집단, 연체경험이 있는 집단과 없는 집단 간에 소비 및 구매행동특성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이들의 소비자행동(예 : 의사결정스타일, 충동구매, 중독구매 등)을 비교하는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셋째, 신용카드 사용행동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고, 관련변수간의 명확한 인과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시계열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일반소비자와의 신용카드 사용행동에 대한 비교 연구를 통해 미래 주역이 되는 대학생들의 신용카드 사용행동에 대해 예측과 전망이 가능하리라 본다.

□ 접수일 : 2005년 01월 15일

□ 심사일 : 2005년 01월 28일

□ 심사완료일 : 2005년 04월 07일

【참 고 문 헌】

- 김경자·홍정하(2002). 대학생들의 개인재무관리 교육 내용 개발을 위한 연구. *생활과학연구논집*, 22(1), 5-17.
- 김영신(2001). 대학생소비자의 화폐에 대한 태도 및 강박적 구매 행동. *소비문화연구*, 4(3), 41-66.
- _____ (2003). 소비자의사결정 유형 및 관련 변수에 관한 연구. *소비문화연구*, 6(3), 51-78.
- 김지연(2001). **소비자의 신용카드 사용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효정(1999). 부부의 가계재무 관리행동과 재정만족도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7(8), 91-102.
- 남정숙·계선자(1990). 신용카드 이용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과 구매행동변화에 관한 연구. *생활과학연구지*, 4, 23-43.
- 박근주(1990). **소비자의 신용카드 사용행동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선태(1995). **신용카드 소지자의 카드 이용에 관한 실증적 연구**.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서경의(1997). **대학생소비자의 신용카드 사용행동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서인주(2003). **신용카드 사용에 관한 소비자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상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심영(1985). **신용카드의 기능에 대한 주부들의 인식**.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상영(1995). **주부들의 신용카드에 대한 지식과 관리행동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재희(1996). 대학생들의 신용카드 인식 및 사용에 관한 연구. *한국생활과학회지*, 5(2), 99-107.
- 임정빈·이영호(1991). 신용카드가 가정경제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9(2), 77-91.
- 조의준(1994). **신용카드 이용자의 구매행동에 관한 실증적 연구**. 경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동숙(1985). 신용카드 사용 주부들의 소비자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2), 31-47.
- 최재복(1995). **은행계 신용카드 고객의 특성과 마케팅 전략**.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홍은실·황덕순(2002). 여대생소비자의 목표중심적 가치가 재정 관리행동과 재정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0(2), 175-186.
- 국민은행연구소(2002). 20대의 소비·금융 행태.
- 삼성경제연구소(2003). **신용사회 정착을 위한 제안**.
- 서울 YMCA(2001). **대학생 신용카드 발급 및 사용 실태**. 조사보고서.
- 한국소비자보호원(2003). **신용카드 이용현황 및 의식실태**. 조사보고서.
- Adcock, W. O., Hirschman, E. C. & Goldstucker, J. C.(1977). Bank credit card users: an updated profile. *Advances in Consumer Research*, 4, 236-241.
- Ausabel, L. M.(1991). The failure of competition in the credit card market. *American Economic Review*, March, 50-81.
- Awh, R. Y. & Waters, D.(1974). A discriminant analysis of economic demographic and attitudinal characteristics of bank charge card holders: a case study. *Journal of Finance*, 29(jun), 973-983
- Baek, E.(2001). Financial concerns and problems of college students. *Association for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Education*, 16-25.
- Brobeck, S.(1997). The consumer impacts of expanding credit card debt. Consumer Federation of America News Release.
- Chakravorti, S.(1997). How Do We Pay?. *Financial Industry issuers*, First Quarter, Federal Reserve Bank of Dallas, 8, 1-6.
- _____ & Emmons, W. R.(2001). Who pays for credit cards. *Policy Studies, Emerging Payments Occasional*

- Paper Series*, EPS-2001-1, Federal Reserve Bank of Chicago.
- Churaman, C. V.(1988). College student use of consumer credit. In *Proceedings of the 34th Annual Conference of the American Council on Consumer Interests*, edited by Vicki L. Hampton: 107-113.
- Coulton, A.(1996). Easy credit for students teaching hard lessons. *American Banker*, 161, 16-17.
- Danes, S. M. & Hira, T. K.(1990). Knowledge, beliefs and practices in the use of credit cards.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8(3), 223-235.
- Davies, E. & Lea, S. E.(1995). Student attitudes to student debt. *Journal of Economic Psychology*, 16, 663-679.
- Edwards, P.(1982). How to milk the best deal out of your credit cards. *Canadian Business*, 5, 153-154.
- Hayhoe, C. R., Leach, L. J. & Turner, P. R.(1999). Discriminating the number of credit cards held by college students using credit and money attitude. *Journal of Economic Psychology*, 20, 643-656.
- Hayhoe, C. R., Leach, L. J., Turner, P. R., Bruin, M. J. & Lawrence, F. C.(2000). Difference in Spending Habits and Credit Use of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Consumer Affairs*, 34, 113-133.
- Joo, S. H., Grable, J. E. & Bagwell, D. C.(2003). Credit card attitudes and behaviors of college students. *College Student Journal*, 37(3), 405-419.
- Kara, A., Kaynak, E. & Kucukemiroglu, O.(1996). An empirical investigation of us credit card users: card choice and usage behavior. *International Business Review*, 5, 209-230.
- Kaynak, E. Yucelt, U. & MacGregor, R. M.(1986). Attitudinal and behavioral characteristics of american and canadian credit card holders. *Journal of Professional Services Marketing*, 1(3), 101-119.
- Lowell, J.(1995). *How to survive in the real world: financial independence for the recent graduate*, N.Y.: Renguin Books.
- Markovich, C. A. & Devaney, S. A.(1997). College seniors' personal finance knowledge and practices. *Journal of Family and Consumer Sciences*, 89, 61-65.
- Mcbride, S.(1997). Young deadbeats pose problems for credit-card issuers. *Wall Street Journal*, November, 28.
- Plummer, J. T.(1971). Lifestyle patterns and commercial bank credit card usage. *Journal of Marketing*, 35, 35-41.
- Rajceki, D. W.(1982). Attitudes: themes and advances. Sinauer Associates, Sunderland, MA.
- Ritzer, G.(1995). *Expressing america : a critique of the global credit card society*, Thousand Oaks, CA: Pine Forge Press.
- Shepard, L.(1984). Accounting for the rise in consumer bankruptcy rates in the United States: A Preliminary Analysis of Aggregate Data(1945-1981). *The Journal of Consumer Affairs*, 18(2), 213-230.
- Starvins. J.(2000). Credit card borrowing, delinquency and personal bankruptcy. *New England Economic Review*, July/August, 15-30.
- Swagler, R. M.(1979). *Consumer and market : an introductory analysis*, 2ed. D. C. Health and Company.
- Walker, C. M.(1996). Financial management, coping and debt in households under financial strain. *Journal of Economic Psychology*, 17, 789-807.
- White, K. J.(1975). Consumer choice and use of bank credit card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0, 526-537.
- Williams, F. L.(1991). Financial management practices by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and their relationship to productivity, satisfaction with time management and quality of life. *Financial Challenges for the Twenty-First Century: Proceedings of the Annual Meeting*, 100-125.
- Xiao, J. J., Noring, F. E. & Anderson, J. G.(1995). College students' attitudes towards credit card. *Journal of Consumer Studies and Home Economics*, 19, 155-174.
- Zhu, L. Y. & Meeks, C. B.(1994). Effects of low income families' ability and willingness to use consumer credit on subsequent outstanding credit balances. *The Journal of Consumer Affairs*, 28(2), 403-422.